



## 프로페셔널한 벤처기업 육성을

코 아 로 직 김 영 태 팀 장

모바일 멀티미디어 SoC전문기업 코아로직의 해외영업팀 김영태 팀장은 또래보다 일찍 팀장이 된 촉망받는 인재이다. 중학교 3학년때 미국으로 건너가 대학졸업을 마친 한국계 미국인인 그는 모국인 한국에서 사회인으로 첫발을 내딛었다.

**김** 영태 팀장은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뉴욕 건설협회 — 사에 들어가겠다는 생각을 했었던단다. 월스트리트에서 주목받는 애널리스트로의 꿈도 품어봤음직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엄연한 현실이 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동양인이 좋은 기회를 잡겠다는 꿈은 하나의 신기루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른다. 오랜 외국 생활과 첫 회사 굿모닝신한증권에서 애널리스트로 재직하며 미국인 보스와 일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그가 본 해외기업 그리고 우리 벤처기업에 대한 말에 귀를 기울여보자.

### 벤처기업 문화, 이런 점이 아쉽다

우선 김과장의 눈에 비친 한국 벤처기업 문화에 대한 첫번째 '보약' 이 될 소감은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가는 젊은 열정으로 대변되는 벤처기업에서 진정한 벤처정신이 아쉽다는 것이다. 우선, 벤처기업을 설립한 사람들이 대기업 출신이다보니 청산해야 할 대기업문화의 잔재가 벤처기업에도 고스란히 이어지는 듯한 느낌을 종종 받는다고. 오히려 벤처는 우리 사회의 기업문화를 혁신해나가는 데 있어 선두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곳 아니겠냐고 반문한다.

또한 밤늦게까지 일해야 성공벤처를 이끄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일이 없어도 오래도록 남아 있는 것, 그것으로 과연 원하는 성과를 내겠는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회사에 대한 열정을 무기 삼아 개인적인 사생활까지 관여하고 간섭받는 것은 기업의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와해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한때 그가 모셨던 미국인 상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일의 성과를 제출하면 전혀 터치가 없었다. 결과물이 나올 때까지 과정을 체크하고 간섭하는 일은 하지 않아, 때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는 자유로운 시간을 맘껏 즐기며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었노라고 술회한다. 그 외국인 보스가 일하는 데 있어서 항상 가장 중시한 것은 바로 "Working Smart!"

###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모색

그의 쓴소리는 계속 이어졌다. 우리 벤처기업은 기술 개발 및 질 좋은 제품 생산에 있어서는 뛰어나지만, 그 제품과 기술이 과연 시장에서 얼마나 필요한가에 대한 거시적인 안목은 부족한 듯 보인다. 무엇보다도 시장에서 원하는 제품을 만드는 마케팅적 시각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그가 건넨 마지막 '보약' 은 벤처기업의 전반적인 경영 및 자금 조달, 재무경영을 전문 경영자가 맡아서 전문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에서는 벤처캐피탈이 이에 적극 관여해 투자전략 및 파이낸싱, 인적 네트워크 형성 등 전체적인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소개했다. 초심을 잃은 벤처기업 설립자들을 전격 교체해 기업문화의 조기 노화를 막는 것도 미국 벤처업계가 힘쓰는 일이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 라고 했던가. 모국어로 건네는 그의 따끔한 조언이 우리 벤처기업이 초심을 잃지 않고 세계로 뻗어나가는데 몸에 좋은 '보약' 이 되길 기대해 본다.